

스웨덴의 인본적 기능주의 디자인과 스벤스크 텐

Swedish Humanitarian Functionalism Design and Svenskt Tenn

강현대*, 곽철안**

상명대학교 생활예술학과*, 상명대학교 실용예술학과**

Hyun-Dae Kang(kanghd@smu.ac.kr)*, Chul-An Kwak(info@chulankwak.com)**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인테리어 분야에서 스웨덴의 현대 디자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스벤스크 텐의 철학과 인본적 기능주의 디자인의 형성과정과 특성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연구를 함에 있어 스벤스크 텐이 형성되던 동시대 건축과 가구디자인의 디자인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이 고유의 브랜드가 당시 유럽의 기능주의 디자인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스웨디시 모던 스타일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1930년대 이후 스벤스크 텐의 독창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요셉 프랭크의 가구 및 텍스타일 디자인을 동시대 스웨덴의 디자인 사례와 비교하여 스벤스크 텐이 실현하고자 한 인본적 기능주의 디자인을 형태적·재료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개념화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공간과 요소, 양식과 기능의 유기성, 2)아말감화를 통한 독창적 공간, 3)추상적 패턴을 통한 공간의 열린 감성, 4)공간을 파괴하지 않는 가구의 형태, 5)합리적 기능주의의 한계 극복.

■ 중심어 : | 스웨덴 현대디자인 | 인본적 기능주의 디자인 | 스벤스크 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racteristic of Swedish craft and modern design in especially furniture and interior design through the philosophy and humanitarian functionalism of Svenskt Tenn. The study completed through researching what the design paradigm of architecture and furniture design in those days was, and theoretically analyzing how this unique brand became a leading modern Swedish style in the European stream of functionalism design. Working upon this research, the study concludes the concept of the humanitarian functionalism design what Firma Svenskt Tenn wanted to realize through analyzing the aspects of form and material of Josef Frank' works who mainly contributed to form the Svenskt Tenn's unique design identity and comparing them to the other design examples of those days. The result are as follows: 1) Organic composition of space and elements, styles and functions, 2) Unique space composition of amalgamation, 3) Open space with abstract patterns, 4) Furniture shapes of displaying space environment, 5) Overcoming the limits of pragmatic functionalism based on rationalism.

■ keyword : | Swedish Modern Design | Humanitarian Functionalism Design | Svenskt Tenn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국내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으로 인해 디자인 교육기관 뿐 아니라 일반의 생활양식에서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구나 인테리어 스타일링(styling)에서 근래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혹은 북유럽 가구 시장은 인터넷 유통망의 발전에 힘입어 이전의 가구 산업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릴 만큼의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선망하던 외국의 스타일을 형식적 측면에서 차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재 한국 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기반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혹은 북유럽 디자인의 근간은 그들의 지역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고려하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스타일이나 양식이 아닌 그들이 계승하고 발전시켰던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끊임없는 노력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에서 제시되는 현대적 디자인이야말로 우리의 디자인이 될 것이며 세계시장에서도 당당히 맞설 한국의 현대 디자인이 될 것이다[1].

이러한 시각에서 현대화의 세계적 영향력에 다소 늦은 영향으로 인한 후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독특한 조형 양식을 발전시킨 스웨덴의 모범적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스웨디시 모던(Swedish Modern)'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근·현대 디자인의 형성은 당시 세계적인 흐름의 모더니즘의 기능주의 이상을 뛰어넘어 민족적 주체성과 공예의 전통 기술을 진보적으로 결합시킨 결과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주로 행해졌던 스웨덴의 현대 디자인의 연구로는 당시 유럽대륙의 근현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기능주의에 입각한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의 전반적 모습이 아닌 국한된 분야에 그 대상도 한정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재 혹은 용도에 의해 구분되던 그간의 연구와 달리 생활양식 전부를 아우르는 홈 퍼니싱

(home furnishing)의 관점에서 스웨덴 현대 디자인을 바라보고 20세기 초 유럽을 강타한 모더니즘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독자적인 스웨디시 모던을 이끈 스벤스크 텐(Svenskt Tenn: 이하 스벤스크 텐)의 철학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홈 퍼니싱의 통합적 관점 속에서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적 수공예의 현대적 가능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시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제시하고자 했던 스벤스크 텐의 성공은 현재의 우리의 디자인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세기 디자인 분야에 있어 스웨디시 모던을 이끈 대표적 사례인 스벤스크 텐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홈 퍼니싱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부드러운 모더니즘과 디자인의 인본주의적 비전에 대해 규명한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우선 당시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 내용과 그와 관련된 20세기 초 스웨덴과 유럽의 디자인과 건축 분야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여 스벤스크 텐의 탄생과 스웨디시 스타일의 모델로서 발전과정, 그리고 그 의의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알아본다.
- 2) 위의 흐름에 있어 1930년 대 이후 스벤스크 텐의 독창적 디자인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요셉 프랭크를 중심으로 그의 디자인이 동시대 인테리어 디자인 이념과 비교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당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던 기능주의의 디자인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가구 및 텍스타일 사례들의 특성을 동시대 디자인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한다.
- 3) 위의 연구를 종합하여 요셉 프랭크와 스벤스크 텐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형태적, 재료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동시대 디자인 패러다임 속에서 어떠한 독점적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이를 통해 스벤스크 텐이 제시하고자 했

던 인본적 기능주의의 비전이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 있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과학적으로 개념화한다.

이에 당시 스웨덴을 둘러싼 디자인 패러다임과 스벤스크 텐의 형성과정을 비교하기 위하여 스웨덴의 현대 디자인 형성과정과 동시대 유럽의 시대성에 대한 논문,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웹사이트를 분석하는 한편, 스벤스크 텐의 역사와 발자취는 당시 설립자인 에스트리드 에릭슨과 중추적 디자이너인 요셉 프랭크의 자서전, 그리고 스벤스크 텐의 카달로그 및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의 발전 과정은 당시 스벤스크 텐을 다룬 인터뷰 자료와 전시회 서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스벤스크 텐 철학이 가시화 된 사례를 동시대에 활동하던 관련 분야의 다른 디자이너의 작업과 비교하였다.

II. 스벤스크 텐의 스웨디시 모던 형성 과정

1. 스벤스크 텐의 설립과 백랍공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벤스크 텐(Svenskt Tenn: 스웨덴의 백랍공예)은 백랍공예품을 전문으로 하는 솥과 공방으로 1924년 에스트리드 에릭슨(Estrid Ericson, 1894-1981)에 의해 처음 문을 열었다. 스벤스크 텐이 설립됐던 1920년대는 'Beautiful Everyday'의 기조 아래 예술을 산업과 접목하자는 주장을 펼쳤던 그레고르 파울(Gregor Paulsson, 1889-1997: Svenska Slöjdföreningen의 총 책임자를 지내며 스웨덴 디자인의 현대화를 이끈 예술사가 혹은 비평가)의 스웨디시 모더니즘이 범국가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였다[3]. 이러한 배경에서 스웨덴의 산업디자인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인간 생활과 제품 사이의 사회적인 기능성과 관계를 모색하는 등 여러 연구 노력에 힘입어 스웨덴에는 생활용품 디자인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탄생하였다. 이처럼 디자인을 생활로 끌어들이고자 한 당시의 범국가적인 관심 속에 탄생한 스벤스크 텐은 설립과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2. 기능주의 시대의 스벤스크 텐

이후 1930년에 Svenska Slöjdföreningen (Swedish Society of Industrial Design: 스웨덴 산업 디자인 단체)의 주최로 열린 스톡홀름 전시회는 기능주의 시대를 알리는 기념비적인 전시였다. 당시 그레고르 파울손과 군나르 아스플룬드(Gunnar Asplund, 1885-1940: 1920년대 스웨디시 그레이스로 대변되는 노르딕 고전주의를 이끈 대표적인 스웨덴 건축가)의 총 책임 하에 이루어진 이 전시는 Acceptera!(Accept!)의 슬로건 아래 문화의 변화에 따른 기능주의와 규격화, 대량 생산의 가치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우고 대중에게 현대적 생활양식의 이로움을 설득하려 기획된 것이다[3][6]. 당시 '최소한의 삶(Existenzminimum: living in the minimum needs)'은 독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서유럽과 영국 등의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이 공유하던 시대정신이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기조아래 금속 튜브의 구조로 이루어진 의자나 모듈시스템의 가구는 스톡홀름 전시회에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그림 1].



그림 1. 1930년 열린 스톡홀름 전시회의 포스터와 출품자인 마르셀 브로이어의 B35 의자

스벤스크 텐 역시 설립 초기부터 함께 했던 스웨덴의 기능주의 건축가 유노 오리앙(Uno Åhrén, 1897-1977)과 비얀 트래고르(Björn Trägårdh, 1908-98)에게 스벤스크 텐만의 독창적 영역의 가구와 인테리어를 주문했다. 이렇게 탄생한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디자인된 가구들은 스벤스크 텐의 솥에 소개되어 매우 성공적으로 소개되었고 스웨덴 디자인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주요한 제품들로 발돋움하게 된다[그림 2]. 유노 오리앙은 특히 기능적이라 함은 본래의 미적 가치를 획득하는 일

런의 과정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는 현대의 형태 감각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이치며 이렇게 그 본래의 목적에 의해 형성된 본질적이고 논리적인 형태는 완벽에 가까운 것으로 이외의 미적 목적을 위한 그 어떤 조형도 불필요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디자이너들이 스스로 디자이너임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믿었고 기교를 배제해야 하며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는 것은 시대적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었다[10]. 이러한 신념을 잘 보여주듯 그 당시 스벤스크 텐의 가구 들은 주로 자작나무를 창백할 정도로 밝게 마감하거나 혹은 검게 염색하여 제작되었다. 기능주의 운동가인 고타드 요한슨(Gotthard Johansson, 1891-1968: Svenska Dagbladet 신문의 기자로 활동하며 스웨덴 건축과 모던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예술, 건축 비평가)은 당시 스벤스크 텐의 가구를 청교도적 절제와 실용적 모던으로 표현하였다[13].



그림 2. 유노 오리앙의 스테킹테이블(1930)과 본 트레고르의 캐비닛(1930)

3. 스벤스크 텐과 비엔나 엘레강스

위와 같이 당시 스웨덴에 불어닥친 기능주의의 바람에 발맞추던 스벤스크 텐은 1934년 요셉 프랭크(Josef Frank, 1885-1967)와 함께 일하면서 혁명적 변화의 시기를 맞는다.

프랭크의 디자인 이념은 당시 독일의 합리주의적 가치가 유럽 대륙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시기를 감안할 때 매우 과격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1920년대 당시 비엔나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활동하던 그가 모더니즘의 계획적인 접근법에 의구심을 품으며 시작되었다. 당시 프랑스의 건축가 르 코

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는 건축을 '삶을 위한 기계'라 정의했고 프랭크는 이러한 그의 생각에 반기를 들었다[10]. 규격화된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사람들을 몰개성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것이다. 프랭크는 더욱 자유롭고 예술적인 이상을 추구했으며 안락함과 편안함의 부드러운 기능주의와 색채와 패턴의 풍부함을 결합시킨 자신만의 모더니즘을 발전시켰다. 또한 그는 당시 유행하던 금속 파이프의 가구들을 인간미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그 대신 자연적 색조와 형태를 인테리어 디자인에 접목하여 닫힌 공간 속에서도 자유로운 감성을 전하는 공간을 창조하기 원했다[13].

4. 역설적 결합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에릭슨과 프랭크의 조합이 당시의 금속주의적 모더니즘의 한계를 넘어 스벤스크 텐만의 인본주의적 기능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당시 그들의 전시에 대해 언급한 기능주의 평론가인 고타드 요한슨이 스벤스크 텐을 냉철한 동시에 유쾌하고 수수한 동시에 화려한 기풍을 발현한다고 평가한 것처럼 역설적인 둘의 균형에 대해 명쾌한 해석을 찾아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13]. 이러한 스벤스크 텐의 난해하지만 매력적인 정체성은 스웨덴의 기능주의의 근간에 비엔나 풍의 화려함을 절묘하고 대담하게 결합한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과 패턴이 얼마나 풍성한지와는 상관없이 스벤스크 텐의 인테리어에는 장식성이 우위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스벤스크 텐의 공간 구성은 기본적으로 패턴의 표현을 단색조의 요소와 조화롭게 배치하고 백색으로 남겨진 벽면이 전체적인 조화를 만드는 평형추로서 역할 했기 때문이다[그림 4].

5. 스웨디시 모던의 모델

에릭슨과 프랭크의 관계는 스웨덴 디자인 역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파트너십으로 남아있다. 프랭크와 함께 일한 후 에릭슨은 제품의 디자인보다는 회사의 운영과 컬렉션, 코디네이션에 그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며 프랭크의 디자인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관점에서 스펠스크 텐은 잘 짜인 계획보다는 우연성을 강조하며 옛것과 현재의 문화, 다른 가구의 양식, 색 패턴을 종합적으로 결합하였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혼합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낸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이러한 철학을 '우연주의(Accidentalism)' 혹은 '행운의 철학(Serendipity)'라 불렀다[13]. 1934년 릴리어락스 미술관(Liljevalchs Art Gallery)의 전시를 필두로 1937년 파리와 1939년 뉴욕의 세계 박람회에서 스펠스크 텐이 선보인 공간은 물성, 색조, 패턴들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시대를 이끌어가던 실용적 기능주의의 흐름을 넘어 공간을 통해 인류애를 실현한 인본주의 기능주의의 시대를 열었다[17][그림 3]. 이를 통해 이들 두오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스칸디나비아 기능주의와 결합한 오스트리아 풍의 스타일은 역설적이게도 스웨디시 모던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림 3. 1934년 Liljevalchs Art Gallery의 스펠스크 텐 전시 사진

III. 스펠스크 텐의 디자인 분석

스펠스크 텐이 기능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혁명적 변화를 맞이한 결정적 시기는 1934년 요셉 프랭크와 함께 일하며 시작되었다[그림 4]. 이에 본 장에서는 요셉 프랭크의 공간 구성법과 텍스타일디자인, 그리고 가구 디자인을 중심으로 그의 신념이 가시화된 대표적 사례를 연구, 동 시대의 다른 디자이너의 디자인 특성과 비교하고자 한다.

	스펠스크 텐 설립 1924년	기능주의 디자인 1930년	스웨디시 모던의 모델 1934년
구분	백랍공예의 시대	기능주의의 시대	인본적 기능주의의 시대
주요 디자이너	에스트리드 에릭슨	유노 오리양 본 트레고르	에스트리드 에릭슨 요셉 프랭크
디자인 특성	백랍 수공예품	가구 및 인테리어	종합적 홈퍼니싱

그림 4. 스펠스크 텐의 시대별 구분과 디자인 특성

1. 아말감화(Amalgamization)

1차와 2차 대전 사이 프랭크가 비엔나에서 활동할 당시 대부분의 건축가가 공설의 슈퍼블록(교통을 차단한 주택지구)에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지적 차원의 공동주택에 관심을 두었다. 1927년 독일의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바이센호프지틀롱(Weisenhofsiedlung: 주택전사회)에 참여한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두세대주택(Duplex house: 한 쌍의 반독립주택)을 통해 기능주의의 엄격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편안한 디자인을 선보였다[12]. 1930년에는 이러한 프랭크의 남다른 시각이 공간과 인간의 관계로 발전되어 그만의 새로운 디자인 양식을 추구하게 되었고 스펠스크 텐과 일하며 건축보다 가구, 텍스타일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테리어로 발현되기 시작한다. 그는 홈 퍼니싱에 관해 '집처럼 느끼게 하는 것'들의 융합이라 믿었고 계획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13]. 또한 집이 복잡한 일상의 휴식처로서 작용해야 하길 원했던 그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함께 다른 가구의 양식, 색, 패턴과 결합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고 믿었고 이를 통해 공간의 단혀 있는 느낌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도 자연스레 혼합되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어떤 디테일도 계획되어 부자연스러워질 필요 없이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집처럼 느끼게 해줄 사랑스러운 것들로 채워지면 된다고 주장했다[그림 5].

프랭크의 신념은 에릭슨의 기능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스펠스크 텐의 주요한 공간 철학이 되었다. 현재 스펠스크 텐의 마케팅 팀장인 토미 빈더펠트(Thommy Bindefeld)는 "우리의 인테리어 디자인 아이디어는 실용적이면서도 개방적이

다. 그리고 사용자의 추억이 서려있는 개인적인 소장품과 함께 다양한 나무의 수종, 색과 패턴을 조화롭게 버무려 개성적인 공간을 연출한다[17].”고 말했다고, 인테리어 건축 담당자인 카트리나 아브라함슨(Katarina Abrahamsson)은 ”스벤스크 텐은 여러 곳에서 공급받은 가구와 조명, 텍스타일을 조심스럽게 우리의 제품과 혼합한다. 우리의 인테리어는 맞춤형과 같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따라서 매우 유니크하다[17].”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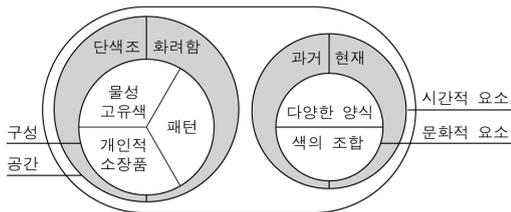


그림 5. 스벤스크 텐의 아말감화 구조

2. 요셉 프랭크의 텍스타일 디자인

2.1 대표적 동시대 텍스타일 디자이너의 특성 비교

요셉 프랭크가 스벤스크 텐을 통해 활발히 텍스타일 디자인을 선보이던 1930-50년대의 스웨덴의 텍스타일 디자인들은 최초의 기하학적 패턴으로 매우 정교하고 인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북유럽의 해가 많이 나지 않는 기후적 조건을 반영하는 정제된 색감과 단순한 패턴이 잘 조화되어 어떠한 구상성을 지니지 않고 현대적 공간과 잘 어울릴 수 있었기 때문이며 모더니즘의 특징에 부합하는 등 쉽게 유행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표 1].

이에 비해 요셉 프랭크는 강렬함, 색조의 화려함, 유기적 형태 등과 함께 자연의 색과 형태를 추상적으로 반복하고 이러한 표현이 자유와 다양함을 상징하길 원했다. 프랭크는 가끔 양식화된 형태를 패턴에 사용하고 색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는데 이는 극적인 효과를 창조하기 위함이었으며 자연적 요소를 상상력과 결합시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자연을 그대로 모방한 이미지는 첫눈에 반하기 쉬우나 그 환상이 곧 사라져 버리는 위험 역시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10].

표 1. 요셉 프랭크와 동시대 스웨덴의 대표적인 텍스타일 디자이너의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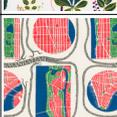
요셉 프랭크	
	패턴 특성: 자연과 환경에서 영감을 받아 추상적이고 장식적인 고전적 패턴 색채 특성: 화려한 색상과 원색 계열의 강렬한 대비색의 주조
아스트리드 샴페(Astrid Sampe, 1902-2002)	
	패턴 특성: 수직과 수평의 기본적인 느낌을 가지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설계 색채 특성: 원색과 무채색의 병렬적 배열에 따라 정적이고 현대적인 색채 조합
스벤 마르켈리우스(Sven Markelius, 1889-1972)	
	패턴 특성: 건축적 특성을 반영하여 순수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용한 단순한 구성 색채 특성: 브라운과 그린 계열의 낮은 채도로 구성하고 최소한의 색채 사용
비올라 그로스텐(Viola Grasten, 1910-1994)	
	패턴 특성: 불규칙한 기하학적인 요소를 결합하고 자유분방한 패턴 구성 색채 특성: 최소한의 색채의 강렬한 조합은 '그로스텐 컬러'로 불리며 현대적 감성전달

2.2 요셉 프랭크의 텍스타일 디자인과 특성

프랭크는 다른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이 단색조의 환경에 대해 지지하는 반면 그는 단색조는 불안한 감성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하고 패턴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느리고 차분한 방식이 무의식적으로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또한 단색의 표현은 그 이상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반면 풍부한 장식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헤아려지기 어려워 지속적인 흥미로움을 자아낸다고 생각했다[7]. 따라서 패턴 디자인에 있어서 그는 직접적 묘사보다는 추상적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강렬한 색조와 자연적 요소의 패턴화를 통해 공간의 고립된 느낌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믿었다 [13][표 2].

표 2. 요셉 프랭크의 대표적인 텍스타일 디자인과 특성

린넨 315 시리즈	
형태	이름/년도/특징
	Guldfisk / 1934 - 1940 꽃으로 둘러싸인 언덕과 작은 언덕의 금붕어, 그리고 그에 비친 파란 하늘을 나는 새를 묘사.

	Brazil / 1943 - 1945 전세계 3분의 1의 우림을 지니고 있는 브라질에서 영감을 받아 강렬한 색조와 풍부한 표현을 패턴화.
	Celotocaulis / 1920년대 Caulis는 식물의 줄기를 이르는 라틴어. 동양의 깃털과 같은 식물에서 영감을 받음.
	Hawaii / 1943 - 1945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인도반도의 나무를 패턴화한 하와이 미술에서 영감 받음.
	Italian Dinner / 1943 - 1945 이탈리아의 과일과 채소에서 영감받음. 줄기와 잎, 과일과 채소, 올리브 줄기가 나무를 꾸미고 있는 형태
	Catleya / 1935 Catleya는 남아메리카의 우림에서 자라는 난의 일종. 현실과 환상의 경계선을 꽃으로 표현함.
	US Tree / 1943 - 1945 북미의 다양한 낙엽수의 잎과 꽃들을 하나의 나무에 한데 묶어 표현함.
	Manhattan / 1942 - 1946 미국에 있을 당시 맨하탄의 도시계획의 단순함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함.
	Aramal / 1941 2009년 다시 생산하기 시작한 프랭크의 텍스타일. 스페인의 해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린넨 415 시리즈	
형태	이름/년도/특징
	Poison / 1943 - 1945 포도, 흙, 담뱃잎과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패턴.
	Drinks / 1943 - 1945 미국에서 찾은 다양한 식물상에 영감을 받은 패턴. 커피, 차, 코코아 등을 패턴으로 만들고 배경에 라틴어 이름을 명사함.
	Notturmo / 1943 - 1945 높은 후추나무와 종려나무가 우거진 열대의 밤을 패턴화. 달빛에 자라는 후추열매를 시트러스와 같은 형태로 디테일하게 묘사함.
	Aralia / 1928 비엔나의 호헤바르테(Hohe Warte)지구의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중 그 곳은 드릅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함.

린넨 100 시리즈	
형태	이름/년도/설명
	Gröna Fåglar / 1943 - 1945 Frank G. Ash Brook의 책 The Green Book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Primavera / 1920년대 초 이탈리아어로 '봄'을 뜻함. 튜립과 데이지 등 봄에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꽃들을 패턴화.
	Rox & Fix / 1944 바위와 무화과의 실루엣을 등고선과 같이 표현하여 시선을 깊은 곳으로 이끄는 효과
	Butterfly / 1943 - 1945 나비와 곤충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패턴. 나비와 잠자리, 무당벌레 등을 꽃과 작은 연못과 조화롭게 표현
	Windows / 1941-1946 집에서 흔히 키우는 실물을 모티브로 패턴화. 맨하탄에 있을 당시 파크 테라스의 아파트에 머물며 창들의 식물을 보고 영감을 받음.

3. 요셉 프랭크의 가구 디자인

3.1 대표적 동시대 가구 디자이너의 특성 비교

스웨덴의 근대화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기능주의적 디자인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평등에 대한 이상'이었다[8]. 사실 이와 같은 민주적 생활환경의 구현에 대한 이상은 스웨덴의 디자인적 이상으로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20세기 초 유럽 대륙의 기능주의 디자이너들의 공동적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스웨덴의 근 현대 가구디자인의 특징은 기능주의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표현 방식으로 토착화하고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스웨덴 가구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다른 디자인 분야의 특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수 공예품의 가치와 현대적 산업 디자인의 조건을 하나로 융합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30년 스톡홀름 전시회(Stockholm Exhibition)는 스웨덴 디자인에 있어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전시였다. 이 전시 이후로 스웨덴의 가구 산업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유행을 뒤따르기보다는 고유의 전통을 상징적으로 적용하고 이론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

기 시작했다[5][6][표 3].

표 3. 요셉 프랭크와 동시대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 디자인의 특성 비교

요셉 프랭크	
	<p>재료 특성: 목재와 텍스타일 업홀스터리의 결합을 통해 부드럽고 따뜻함 강조</p> <p>형태 특성: 스웨덴 기능주의에 비엔나풍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접목하고 공간적 맥락 고려</p>
군나르 아스프룬드(Erik Gunnar Asplund, 1885 - 1940)	
	<p>재료 특성: 목재와 가죽, 강철과 같은 현대적 소재의 범용</p> <p>형태 특성: 1930년 대 이후 바우하우스의 영향으로 현대적 디자인과 신고전주의 결합</p>
맛츠 테셀리우스(Mats Theselius, 1956-)	
	<p>재료 특성: 스웨덴 민속가구의 특징을 목재, 강철, 알루미늄을 병용하여 구현</p> <p>형태 특성: 산업화와 스웨덴의 민속적인 형태 사이의 대조를 보여줌</p>
브루노 맛손(Bruno Mathsson, 1907 - 1988)	
	<p>패턴 특성: 프레임은 주로 목재로 하여 험잡이나 가죽 등의 소재로 업홀스터리</p> <p>형태 특성: 쌓을 수 있는(Stacking) 의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의자 디자인</p>

3.2 요셉 프랭크의 가구디자인과 특성

요셉 프랭크는 가구를 고려함에 있어 실용성과 안락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시점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프랭크는 각 가구는 그 가구가 놓일 공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가구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시각적으로 명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는 어떠한 가구도 벽과 바닥의 경계선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믿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가구는 모든 공간적 효과를 파괴하는 것이라 생각했다[10]. 따라서 그는 벽에 붙는 수납장과 같은 가구들의 다리를 일반보다 높게 디자인하고 의자와 같은 경우에도 의자의 등판으로 인해 그 뒤의 공간을 가리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는 살로 이루어진 원저스타일의 의자를 주로 디자인하였으며 자신이 디자인한 텍스타일을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공간적 환기를 창출하는 자신의 방식이 가구디자인에서도 구현되길 원했다[표 4].

표 4. 요셉 프랭크의 대표적 가구 디자인과 특성

요셉 프랭크의 가구	
형태	이름/년도/특징
	<p>Armchair 652 / 1936</p> <p>오픈된 등받이는 얇은 봉을 결합하는 결구방식으로 제작되었고 기하학적이면서도 가벼운 형태를 보인다.</p>
	<p>Armchair 1165 / 1946</p> <p>프랭크가 뉴욕에서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해에 디자인되었다. 라탄을 통해 오픈된 등받이를 만들었고 좌판은 Aramal red 텍스타일로 마감하였다.</p>
	<p>Cabinet 2215 / 1957</p> <p>높은 다리와 크기가 다양한 사람의 동양 옷칠 서랍장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프랭크의 가벼운 형태가 동양적인 조형과 유럽의 바로크와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잘 보여준다.</p>
	<p>Cabinet 522 Textile / 1945</p> <p>영국의 전통인 가구에 천을 입히는 방식은 프랭크에게 신선하게 영감이 되었다. 522 캐비닛은 마호가니와 그가 디자인한 텍스타일과 훌륭한 조합을 보인다.</p>
	<p>Glass Cabinet 2077 / 1946</p> <p>장식장은 주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애장품들이 진열되어야 하며 보는 이에게 고요하면서도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을 선사한다고 요셉 프랭크는 믿었다.</p>

IV. 인본적 기능주의 디자인의 실현

[그림 6]은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요셉 프랭크의 당시 스웨덴의 텍스타일과 가구 디자이너와 비교하여 각 분야에 따른 디자인 특성을 포지셔닝 맵으로 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20세기 초중반의 스웨덴은 독일의 합리주의적 이해와 가치가 거대한 물결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였다. 또한 그레고르 파울손이 전개한 예술 민주주의의 운동으로 탄생한 스웨덴의 미학적 가치가 스웨덴의 전반적인 디자인의 조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과 다른 노선을 걸었던 스벤스크 텐이 자국 및 국외에서 독점적 영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텍스타일과 가구디자인을

바라본 요셉 프랭크만의 시각이 형성한 독특한 정체성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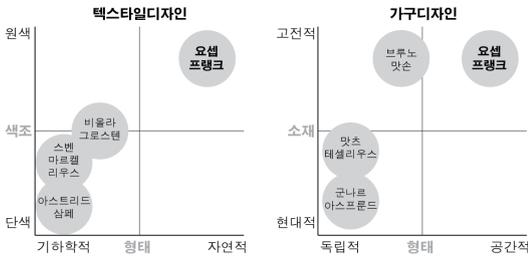


그림 6. 요셉 프랭크의 디자인 특성 포지셔닝 맵

[그림 7]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요셉 프랭크가 스벤스크 텐의 인본적 기능주의를 어떻게 구체화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구성한 개념도이다. 이를 통해 요셉 프랭크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간과 각 요소를 독립적으로 나누지 않고 유기적인 관계로 보았으며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의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 인간과 공간의 결속을 강하게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셉 프랭크의 이와 같은 철학은 당시 유럽의 합리주의에 근본을 둔 기능주가 지닌 실용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삶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고자 한 스벤스크 텐만의 인본적 기능주의 홈 퍼니싱 디자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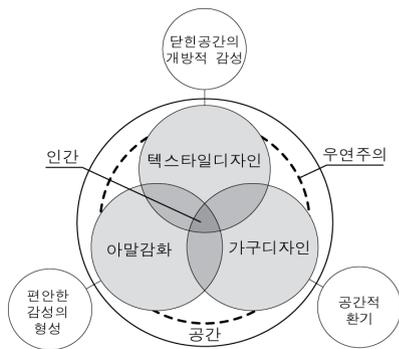


그림 7. 스벤스크 텐의 인본적 기능주의 개념도

V. 결론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은 점차 확장되어 실제적 일상

의 삶이자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디자인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로 자리잡아가는 현상 속에서 복지국가 형성이라는 당시 스웨덴의 시대적 이상을 뛰어넘어 독자적인 언어로 인본적 기능주의 디자인을 실현한 스벤스크 텐의 철학과 발전과정은 우리에게 교훈적 사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스벤스크 텐의 디자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공간과 요소, 양식과 기능을 분절하여 유기적 관계를 구성한다. 또한 각 요소의 환경적 맥락을 고민하고 화려함과 단순함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장식성과 기능주의라는 대치적 개념을 조화시켜 개성적 공간을 창출한다.

둘째, 홈 퍼니싱의 숙주인 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위적인 공간 연출보다는 다양한 재료, 색과 패턴, 그리고 개인적 소장품과 같은 집처럼 느끼게 하는 요소를 통해 편안한 구성을 창조한다.

셋째, 벽지, 텍스타일, 업홀스터리(upholstery) 등은 추상적 패턴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흥미로움을 불러 일으켜야 하며 이를 통해 닫힌 공간의 열린 감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넷째, 가구는 공간을 점령하거나 파괴하지 않아야 하며, 공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높은 다리와 열린 구조의 등판으로 디자인 되어야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이동하기 쉬우며 시각적으로 우아하면서도 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섯째, 당시 유럽의 합리주의에서 출발한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은 스웨덴의 실용적 기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공간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가능성을 제시하고 삶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아본 스벤스크 텐 디자인의 가장 큰 특성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집가를 위한 컬렉션 대상이 아닌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대중의 일상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생명력은 스벤스크 텐이 시대적 흐름에 따른 디자인을 하기보다 사용자의 일상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홈 퍼니싱이 지닌 가치의 중심을 인간에 두고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라 생각된다. 결국 스벤스크 텐의 디자인은 합

리성으로 일관하던 당시 스웨덴의 디자인을 넘어선 독점적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인본적 기능주의로서 스웨디시 모던의 의미 있는 역할 모델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들 디자인의 시대적 의미와 특징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선망하던 외국의 양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을 넘어 한국 현대 디자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동시에 미래적 비전을 고민하는 데에 있어서 스벤스크 텐의 독자적 철학과 지향점, 일상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강현주, "스웨덴 디자인의 발전과 현재", 한국 디자인학회, 제11권, pp.1-9, 1995.
 [2] 정경연, 박하나, "스웨덴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연구", 한국공예논총, 제14권, 제1호, pp.96-110, 2011.
 [3] 홍의택, "근대 스웨덴 디자인의 형성과 그 전개",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통권19호, pp.43-44, 1997(5).
 [4] 홍민정, 최정신, "1980년대 이후 스웨덴 가구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23권, 제1호, pp.10-25, 2012.
 [5] 홍민정, 최정신, "스웨덴 근·현대 가구 디자인의 특성과 브루노 맞손의 작품세계", 한국가구학회지, 제20권, 제5호, pp.517-532, 2009.
 [6] 최정신, "20세기 스웨덴 현대 가구디자인의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19권, 제1호, pp.148-157, 2010.
 [7] 강현주, *디자인사 연구*, 조형교육, 2004
 [8] 전용덕, *복지국가의 미래 덴마크와 스웨덴의 국민*, 북코리아, 2013
 [9] Aaron Betsky and Adam Eeuwens, *False Flat*, Phaidon press, 2004
 [10] Christina Wängberg-Eriksson, *Book Josef Frank Livsträd i Krigets Skugga*, Svenskt

Tenn, 1994.

[11] Ingrid Sommar, 손주현, 이경래 역, *스칸디나비아안 디자인*, 비즈앤비즈, 2012
 [12] Karl Kramer, *Bau und Wohnung*, Stuuugart, 1927.
 [13] Monica Boman 외, *Founder of Svenskt Tenn*, Svenskt Tenn, 2003.
 [14] Sven Thiberg, 이연정 역, *스웨덴의 주택연구와 디자인*, 태림문화사, 1999
 [15] <http://www.dezeen.com/2012/06/16/masonite-memorial-by-folkform-for-svenskt-tenn/>
 [16] <http://www.swedishdesign.org/>
 [17] <http://www.svenskttenn.se/default.aspx>
 [18] <http://www.scandinaviandesign.com>

저 자 소 개

강 현 대(Hyun-Dae Kang)

정회원



- 1998년 2월 : 홍익대학교 목조형 가구학과(미술학사)
- 2002년 2월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미술석사)
- 2009년 2월 : 홍익대학교 목조형 가구 전공(박사과정 수료)
- 2011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생활예술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가구디자인, 디자인아트, 바이오디자인

곽 철 안(Chul-An Kwak)

정회원



- 2006년 2월 : 홍익대학교 목조형 가구학과(미술학사)
- 2010년 6월 : Design Academy Eindhoven Contextual Design 학과(미술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실용예술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 가구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공예분야